

12월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출범과 종교방송

자율 광고 시대 보호막은 없다

방송광고공사 영업 독점제 폐지 · '패키지 판매' 금지, 불교방송 타격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은 뉴미디어 산업 정책과 규제기구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12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제 해소방침에 따른 새로운 방송광고 정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00년 논란이 됐다가 무산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영업 독점제 폐지와 민영 미디어랩(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전면 도입이 그것이다.

이에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 방송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방송은 자율광고 경쟁에서 일반 방송에 뒤질 수밖에 없어 수입이 줄어들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은 방송광고미디어랩의 선택을 방송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



그레픽=최정근

선택 권한 인정 VS 경쟁 체제 전환

민영 미디어랩 전면 도입

속하에 방송광고 판매방식을 공 · 민영미디어랩의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 정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느 의견이 관철되든 미디어랩 체제로 전환되면 광고주가 선호하는 방송사에게 광고가 배정되기 때문에 설사 공영과 민영미디어랩 중 어느 곳에 속하더라도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자율경쟁 시장을 예고하는 새 방송광고 방안에서는 불교방송이 국민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 포교하는 종교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광고시장은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독점해 왔으나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불교방송의 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공사내 영업 3종 중 2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SBS 라디오(AM, FM)가 함께 소속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수주에 따라 광고액이 결정돼 자체의 광고영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방송사의 채널수가 급격히 늘면서 광고 수주도 경쟁이 치열해 영업 능력에 따라 실적도 크게 좌우된다.

과거처럼 SBS의 광고 수주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패키지 판매 방식이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불교방송에게 한국방송광고공사만 버팀목은 아직까지 수입을 위한 큰 의지처이다. 지난해 광고 수입만 해도 126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월 평균 1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 종교방송 4사 가운데 광고 매출이 기독교방송(CBS)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근 5년간 불교방송의 광고 수입을 비교했을 때 큰 기복이 없는 수치다. 한마디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존폐하는 한 광고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광고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들어선다면 결코 안정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불교방송을 비롯한 종교방송 자구책의 일환으로 현재 각 방송사에서 내고 있는 14%의 광고수수료와 45%의 방송발전기금을 합한 18.5%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보호장치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KBS와 EBS는 상업방송과 구별되는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5.5%의 방송발전기금을 3.3%로 낮춰주고 있다.

세금 감면 통한 수익 보장 필요

포교 장르 강화 · 특화된 영역 확보 시급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4사에 대해서도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광고 수입 격차에 따른 보호 장치를 따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익 프로그램을 만드는 종교방송 등에 방송발전기금을 제작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광고로 충당하고 있는 불교방송이 광고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방송으로서 독특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업방송에서 주를 이루는 오락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불교문화와 불교 교리강화, 신행상담, 크스닉 초청 법문 등 불교방송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포교 장르를 대폭 강화해 청취율 고양을 통한 위상 정립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히 광고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되고 광고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불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방송광고영업을 담당할 직원을 현재 4명에서 2~3명 정도로 늘려 광고영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후원회 활성화로 고정적인 소액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외에도 불교 실업인들의 명예이사 위촉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광고유치와 후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news.com

문/화/소/식

동국불교미술인회 日 도쿄서 전시



김정걸 씨의 '목조 아미타 삼존상 불감'.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박현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7층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용섭씨의 '일광삼존불상'을 비롯해 김의식의 '수월관음보살도', 김정걸씨의 '목조아미타삼존상 불감', 박현수씨의 '기룡관음도', 송근영씨의 '관세음보살입상' 등 불상과 불화 60여점이 선보인다.

박현수 회장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회화, 조각, 공예, 단청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30여명의 불교 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리고자 창립 기념 행사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한일불교미술 교류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그동안 개인이 전시하는 일은 많았지만 한 단체에서 한국의 불교 미술을 해외에 알리고자 전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안다"며 행사 의미를 덧붙였다.

김종섭 佛畫展(12월 7~12일)



김종섭 작 '오백나한도'.

오백나한이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표정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다. 자애로움과 익살이 가득하다. 나한이 무서운 존재로만 각인돼 있었던 다른 분명한 그림을 보는 순간 입가에 웃음이 머금을 것이다. 불화가 김종섭씨가 21m 길이의 한지에 선보인 '오백나한도'를 보면 말이다.

이렇듯 김씨는 불화를 단순한 묘사가 아닌 특유의 익살과 개성, 정교함과 세밀한 필력을 동원해 색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실인 불화 40여점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천수천안관음도', '지장보살도', '한산십육도', '관음도', '달마도' 등이 벽에 걸린다.

대체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터치돼 그림을 마주 대하면 마치 불보살이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이 느껴진다. (054)571-8522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옐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명)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라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गर-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라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गर-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गर-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2005학년도 전기 위덕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주·야)

1.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접수	일반/불교/사회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1. 15.(월)~11. 26.(금), 17:00	본대학 정문(대학원교학팀) http://grad.uu.ac.kr 대학원 입학안내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1. 15.(월)~12. 3.(금), 17:00	
면접일시	일반/불교/사회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1. 27.(토), 14:00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2. 4.(토), 14:00	일반/불교/사회복지대학원 URS(관) 302호 경영대학원 : 지혜관(인문관) 311호 교육대학원 : 금강관(예체능관) 210호
합격자발표	일반/불교/사회복지/경영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2. 6.(월), 10:00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004. 12. 13.(월), 10:00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2.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신입생(석사과정 및 최고경영자, 불교지도자 과정)

대학원명	개설학과	개설전공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주·야)	불교학과	불교학, 밀교학, 응용불교학	석사과정 18명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법학과	공법, 사법	
	외교통상학과	정치학, 경제학	
	정보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컴퓨터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불교대학원 (야간)	종교학과	진각종학, 밀교학	석사과정 5명
사회복지대학원 (야간)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석사과정 30명
경영대학원 (야간)	경영학과	인사·조직,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회계학, 국제경영	석사과정 25명
교육대학원 (야간)	교육학과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	석사과정 50명

※ 불교대학원 불교지도자 과정,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CEO) 과정 모집 중

나. 편입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중 결원 내에서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에 한함

3. 전형방법 : 면접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졸업 ·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전 대학원), 전형료(50,000원)

5. 장학금 종류 : 성적장학금, 특별장학금, 면학장학금 등

6. 수험생 유의사항 : 입학원서, 졸업 ·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전 대학원), 전형료(50,000원)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전형료(우편소액환)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 봉투 겉면에 대학원 입학원서 재증을 기재하기 바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대학원교학팀 <☎ 054)760-1080 ~ 1083>에 문의 바랍니다.

입시요강, 입학원서 다운로드(위덕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uu.ac.kr